

총무원장 자승스님 캄보디아 방문 현장

“형제국가로서 두 나라 우의 더 돈독해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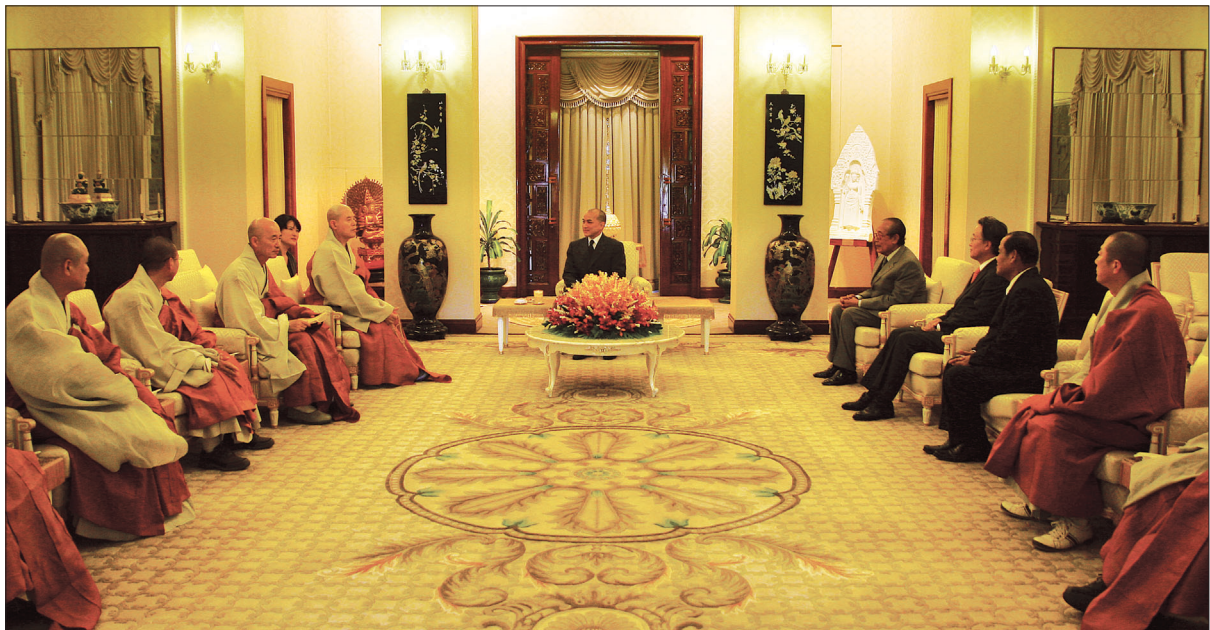
씨엠립의 BWC아동센터(어린이 마을)에서 거행된 화엄다목적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9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국왕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빈민을 만났다. 총무원장 스님은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한-캄보디아의 우호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추진력에 가속도를 붙이는 한편 자비행을 널리 알렸다. 지난해(본지 2642호) 화엄다목적센터 준공식 현장 보도에 이어 총무원장 스님의 국왕 예방과 빈민지역 구호활동을 소개한다.

노르돔시아모니 국왕 예방

국왕, 현관까지 나와 환영 이레적

○… 지난 22일 오전11시50분(현지시간) 노르돔시아모니 국왕은 총무원장 자승스님 일행을 왕궁 현관에서 맞이했다. 또한 예정보다 긴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은 물론 총무원장 스님 일행이 왕궁을 떠날 때도 현관에서 차량이 모두 왕실 정문을 빠져나갈 때까지 환송했다. 캄보디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국왕이 현관까지 나와 직접 환영하고 환송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노르돔시아모니 국왕은 한-캄보디아가 불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상호 우호 증진과 협력으로 양국의 불교계와 정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캄보디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의료,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과 화엄회 스님들은 국왕 접견실에서 노르돔시아모니 국왕과 환담을 나눴다.(사진 왼쪽) 총무원장 스님은 띠아산 캄프봉 마을 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띠아산 캄프봉 빈민가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쌀 나눠줘

○… 지난 20일 오전에 화엄다목적센터 준공식이 끝난 뒤 점심공양을 마친 총무원장 스님과 일행은 오후에 빈민가를 방문했다. 씨엠립에서 빈민가로 손꼽히는 띠아산 캄프봉 마을을 찾았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300여명에 이르는 주민이 모였다. 마침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대 학생 30여명도 불교계와 공동으로 선행(善行)을 실천했다. 지난해 조계종 화엄회에서 마련해준 우물 옆 큰 나무 그늘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 총무원장 스님을 수행해 캄보디아를 찾은 성문(동화사)·정여(범어사)·돈관(은혜사) 스님도 쌀을 나누어 주었다. 쌀을 받아든 주민들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집으로 돌아갔다. 화엄회장 성직스님은 “비록 작은 노력이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한국의 스님과 불자들이 캄보디아 등 가난한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세 살 난 딸과 한 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나온 썸뽀씨는 “멀고 먼 한국에서 이곳까지 직접 와서 쌀을 나눠주는 스님들을 만나니 너무 기쁘다”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 주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이 밖의 주민들도 40대에 육박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까지 찾아온 스님들에게 쌀을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캄보디아 포놈펜 · 씨엠립=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최고 지위 국왕 예방한데 이어 구호활동까지 한국불교 세계화 행보 넓히고, 자비행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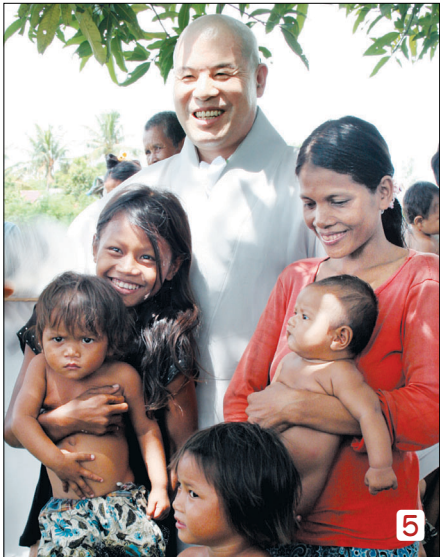
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졌다”면서 “국왕이 한국불교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계종 총책모임 화엄회장 성직스님(중앙종회 부의장)도 “국왕임에도 소탈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국 불교계가 캄보디아 국민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왕의 당부에서 ‘백성의 생활을 걱정하는 군주’의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다. 영천 만불사 주지 학성스님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 국왕에게서 편안함이

무엇인지 새삼 느꼈다”면서 “매우 친절하게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 씨엠립의 BWC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동국대 상임이사)은 “60년 전 한국이 어려울 때 캄보디아가 도움을 주었다”면서 “이제는 한국이 캄보디아를 도울 차례”라고 설명했다. 성관스님은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통해 성장한 청소년들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낀

다”면서 △문맹퇴치 △의료봉사 △빈민구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노르돔시아모니 국왕은 “BWC의 활동으로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준데 대해 왕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 한편 국왕 예방후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은 민진 종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불교 종정 테폰스님을 잇따라 만나 두 나라의 우호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민진 장관은 “캄보디아와 주민을 위해 노력해주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테폰스님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잘 극복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인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1 총무원장 스님 일행을 향해 합장하는 노르돔시아모니 국왕. 2 국왕 예방을 마치고 왕실 부총리 안내로 나오는 총무원장 스님 일행. 3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은 민진 종교부 장관과 만나 두 나라 우호증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4 지난해 화엄회가 띠아산 캄프봉 마을에 마련해준 우물을 보고 있는 스님들. 5 환하게 웃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과 마을사람들.



산소가 나온다

수맥이 흐르면
꿈을 많이 꾸고
허리가 아프고
불면에 시달리고
감기가 잦으며
늘 피곤한 분

미국 FDA 등록 창업 20주년 감사 행사
시원한 “흙·돌침대” 여름세일



발명가 李京馥 대표
특허류 수습여개



130만원

《경복궁》

원목기구 1인용



169만원

《신공주더블》

원목기구 2인용



400 > 260만원

《거실용소파》

발명특허 소가죽

로사씨는 시어머니 혼수 선물로 보냈더니 지금껏 구박을 당하지 않았고...
요한씨는 고향에 부모 효도선물로 보냈더니 잘 주무신다고 뉴스에 나왔다...

명동본점: 명동성당 정문 앞
(02) 777-4888

잠실공장: 잠실역 2번 출구
(02) 443-5888

신도림점: 테크노마트 4층
(02) 777-4686

◎ 전국 최대 전시장
www.smbd.co.kr

여름 : 시원하게 사용

명품을만드는 SM 수맥흙침대

명품을만드는 SM 수맥돌침대

겨울 : 따뜻하게 사용